

- 주요 뉴스: 러시아, 계획대로 전쟁을 지속.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 합의
 - 연준 의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
 -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6개월 만에 최저치. 코로나 변이 확산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전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5%], 달러화 강세[+0.4%],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며 2.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매수세 강화
유로화가치는 0.5% 하락, 엔화는 0.1% 상승
 - 금리: 미국 국채시장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 표명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08.02원, +2.6원) 0.2% 상승, 한국 CDS 하락

		3/3일	3/2일	전일대비			3/3일	3/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63.5	4,386.5	-0.53%	국채 금리 10y	미국	1.84%	1.88%	-4bp
	유럽	437.36	446.33	-2.01%		독일	0.02%	0.03%	-1bp
	중국	3,481.1	3,484.2	-0.09%	CDS 5y	한국	29bp	30bp	-1bp
	일본	26,577	26,393	0.70%		중국	57bp	59bp	-2bp
	한국	2,747.1	2,703.5	1.61%	위험 지표	EMBI+	-	575	-
환율	달러지수	97.72	97.39	0.35%		VIX	30.48	30.74	-0.85%
	유로화	1.1066	1.1119	-0.48%		WTI유	107.67	110.60	-2.65%
	엔화	115.46	115.52	0.05%	원자재	구리	478.3	465.6	2.73%
	위안화	6.3203	6.3211	0.01%		금	1,936.0	1,928.7	0.37%
	원화	1,204.6	1,206.1	0.1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러시아, 계획대로 전쟁을 지속.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 합의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 다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핵무기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양국은 2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을 합의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추가 논의 필요
- 미국이 러시아 신흥재벌 및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 EU는 WTO에서 러시아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의 박탈을 검토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제한 방법을 모색
-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지수에서 제외하고 독립시장(standalone)으로 재분류.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인 B3로 강등했고, S&P도 해당 등급을 BB+에서 CCC-로 하향 조정
- WSJ은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도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 컨설팅 기업 Teneo는 제재 조치가 장기화되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지만, 러시아의 반발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의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둔화, 투자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도 변하지 않았다고 부연. 3월 0.25%p 금리인상을 지지하며 필요 시 보다 적극적인 긴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
-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양호하기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공급망 개선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그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발언

■ 미국 1월 ISM 서비스경기지수, 1년 만에 최저. 신규수주 등이 부진

- 해당 지수는 56.5로 예상치(61.0) 하회.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신규수주와 기업활동 등이 저조. ISM의 Anthony Nieves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등이 계속해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

■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

- 2월 회의에서 위원들은 양호한 경제회복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다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기에,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들 시각의 변경 여부가 관심사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 한편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19 발생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

■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사상 최고치.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

- 유로스탯에 따르면, 1월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6% 올라 전월(26.3%) 및 예상치(27.0%) 모두 상회. 석유 및 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비 85.6% 상승.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6개월 만에 최저치. 코로나 변이 확산 등이 영향

- 해당 지수는 50.2로 전월(51.4) 및 예상치(53.0) 하회.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신규사업, 신규수출 등이 부진. 차이신 그룹의 Wang Zhe는 서비스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

■ 일본은행 정책위원,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본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

- 나카가와 준코 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기에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또한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건): 21.5, 전주(23.3), 예상치(22.5)
- 미국 1월 공장수주(전월비): 1.4%, '21년 12월(-0.4%), 예상치(0.7%)
- 유로존 2월 종합 PMI(수정치): 55.5, 1월(52.3), 속보치(55.8)

■ 주요 경제 이벤트(3/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2월 고용보고서
- 유로존 1월 소매매출 독일 1월 무역수지, 일본 1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러시아 금융제재, 외환보유액 축적과 활용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계기 - WSI**
(If Currency Reserves Aren't Really Money, the World Is in for a Shock)
 -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접근을 차단.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유효한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외환보유액 축적의 의미를 훼손할 위험. 이란 등이 해외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와 유사
 - 이에 중국 등은 금융제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금 등의 자산 보유를 확대할 가능성. 또한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이 강화될 전망. 이를 통해 탈세계화가 심화되고, 통화 문제와 지정학적 위험이 분리될 소지
-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위기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War in Ukraine threatens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은 아직 '08년 리만 사태와 같은 충격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 이는 러시아 금융자산의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전개된 것은 아니기에 현 상태에 안심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히 구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국 달러화, 최근 의구심에도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 - 블룸버그**
(Dethroning King Dollar Won't Be an Easy Feat)
- **유럽,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신속하게 탈피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y the EU should end Russian gas imports now)
- **중국 정책당국, 추가적인 소비촉진책 등으로 소비감소 대응 예상 - WSI**
(In China, Fewer Are Willing to Splurge as Economic Worries Moun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